

##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Venture Firms in Taej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pin-offs from Taeduk Science Town

민 완 기\*, 신 동 호\*\*

### 〈目 次〉

I. 서론	IV. 활성화 방안
II.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현황	V. 결론
III. 지원정책 및 인프라 현황	

### 〈Abstract〉

The venture firms originating from the government-financed research institutes of Taeduk Science Town play a dominant role in Taejon. Those venture firm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y are innovative in the growth stage, although not so innovative in the beginning stage. Second, they still largely depend on the domestic market because of their import-substitution strategy. Third, they mostly lack administrative capabilities. Finally, the infrastructure of venture firms is not good in spite of many supporting government policies.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xisting business incubator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venture capital, and continuous supports by the incubating organizations should be warranted to encourage the spin-offs from the government-financed research institutes.

Key words: venture firm, government-financed research institute, infrastructure, business incubator, venture capital, spin-off

\*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학부 교수 (e-mail: wkmin@eve.hannam.ac.kr)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mail: dhshin@eve.hannam.ac.kr)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발전이 1980년대말 이후 미국산업의 경쟁력 회복의 중요한 배경으로서 논의된 이후,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sup>1)</sup> 첨단기술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한국경제의 양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주역으로 주목받던 벤처기업은 최근 정부가 IMF 경제위기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서 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함에 따라 더욱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는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까지 2만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본고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한 연구로 한국은행 대전지점(1998)과 강병수(1998)의 연구가 있지만 전자는 대전·충남지역 전체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분석대상을 달리하며, 후자는 대덕연구단지의 창업 여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의 주된 배태조직이 대학과 연구기관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 중소기업청이 2,042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경영자의 출신 배경은 대학교수가 2.2%, 연구원 9.4%, 대기업 32.0%, 중소기업이 48.3%이다.<sup>2)</sup> 그러나 올해부터 실험실공장과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에 연구원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은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 연구는 연구원 창업이라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한 유형에 관한 연구이자, 향후 비중이 증가될 벤처기업 유형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 둘째,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은 대덕연구단지의 향후 위상과 관련해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호(1998)는 기술집적도시로서의 대덕연구단지 기능은 교육훈련기능, 연구교류기능, 연구개발기능, 창업촉진기능, 산업생산기능, 주거문화기능이 있는데 현재 교육훈련기능, 연구교류기능, 창업촉진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또한 설성수의(1999)도 지식거점으로서의 대덕연구단지는 연구개발기능은 뛰어나지만, 연구결과의 산업적 활용 및 창업촉진은 미약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핀오프되는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대덕연구단지의 향후 위상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 
- 1) 벤처기업에 관한 정의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다. 벤처기업은 '소수의 핵심창업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 또는 '첨단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경영의 위험성은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 신생기업'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벤처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든 벤처기업은 기업가정신, 첨단기술, 높은 위험부담, 높은 기대수익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 2) 벤처기업협회에 소속된 138개 벤처기업에 관한 기정훈(1997)의 조사결과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출신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즉 창업주의 이전 직장은 연구기관이 14.3%, 대학이 4.0%, 대기업이 37.4%, 중소기업이 38.4%이었다.

본고는 먼저 연구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검토한 뒤,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피노프된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벤처기업 지원정책과 대전지역의 인프라 현황을 고찰한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피노프되는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요약 및 한계가 지적된다. 대전지역 벤처기업에 관한 기존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주로 정부 및 출연(연) 관계자, 그리고 주요한 벤처기업가들과의 인터뷰 및 자료협조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탐색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한다.

## 2. 기존연구의 시사점

벤처기업에 관한 기존연구는 국내외에 광범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본고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피노프된 벤처기업들은 어떠한 특징 및 조건하에 있는가가 주관심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특징, 지원정책의 특징,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국내 기존연구들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장과 관련해서 국내 벤처기업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김홍범(1998)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들은 첫째 창업의 배태조직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인 경우가 지배적이며, 둘째 선진국에서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화하는 경향이 많으며, 셋째 새로운 시장의 개척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진국의 벤처기업들은 높은 위험과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국내 벤처기업들은 낮은 위험, 낮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정훈(1997)도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스피노프가 적다는 것은 신기술을 기업화하여 창업한 유형보

다 기존기업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모방 창업한 유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피노프된 벤처기업들이 더 혁신적인가 또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일반적 특징과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III장과 관련해서 국내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한영주외(1997)에 따르면 지원정책이 대부분 이미 싹을 틔우고 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골라 발아단계부터 성장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김홍범(1998)은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벤처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들은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작년 유망한 중견 벤처기업들의 잇달은 도산 이후 지원정책이 벤처기업의 초기단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제기되었다. 한편 송위진(1998)은 벤처기업에 관한 지원정책이 주로 자금, 인력, 입지 등과 같은 유형적 자산의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비판한다. 이에 관련해서 현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벤처기업 인프라의 현황은 어떠한가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V장과 관련해서 국내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들이 제기되고 있는가. 김갑성(1998)은 창업공간(TBI)의 확대,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양성, 기술지식의 외부조달 네트워크의 구축, 벤처자금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술평가센터 설립,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정보·마케팅 지원, 가칭 '한국벤처창업육성협회'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대전지점(1998)은 대전·충남지역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벤처기업

의 집적도 제고, 산학연 연계의 연관성 제고, 특허제도·지적소유권보호제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윈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벤처캐피탈·장외시장의 활성화, 벤처기업의 자구노력 지원 강화, 창업을 위한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기됐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펀오프된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벤처기업을 분석하는 경우 성장단계별로 벤처기업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구분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고는 분석의 편의상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로 단순화한다.<sup>3)</sup> 여기서 창업기란 회사설립을 마치고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이며, 성장기는 상품화에 성공하여 매출이 신장되는 단계이며, 성숙기는 확고한 인지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여 시장의 규모확대에 주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 II.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현황

### 1. 일반적인 현황

현재 대전지역의 벤처기업에 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다. 사실상 어떤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일보사의 벤처기업총람에 따르면, 97년 12월 현재 대전에는 우수업체 기준으로 62개의 벤처기업이 존재하고 있어 전체의 약 8.5%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 대전지점에 따르면 98년 7월 현재 대전·충남지역에는 약 160여개의 벤처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여기에는 많은 기업이 누락되어 있다.<sup>4)</sup>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전체상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펀오프된 기업들의 전체상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펀오프된 벤처기업들은 '대덕 21세기'라는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의 65개사의 '대덕 21세기' 회원사들은 모두 대덕연구단지의 정부 출연(연)에서 스펀

<표 1> '대덕 21세기' 회원사 설립 및 종업원의 추이(98년 11월)

구 분	88/89년	90/91년	92/93년	94/95년	96/97년	98년	계
회원사 설립(개)	1/1	2/3	6/3	7/9	20/9	4	65
종업원(명) <sup>1)</sup>	25/21	35/161	84/70	96/91	187/121	54	951

주: 1) 종업원은 회원사 설립 당시의 종업원임  
 자료: '대덕 21세기' 내부자료

3) 한영주의(1997)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보통 5단계 정도로 분류되며,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Webster는 벤처기업을 준비단계, 조직단계, 위기단계, 제품도입단계, 확장단계, 결과단계로 구분하였으며, Ruhnka and Young은 시작단계, 창업단계, 시장진입단계, 확장단계, 연결단계로 구분하였다.

4)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대전지점의 추계에는 EVA 소속 벤처기업들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2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피되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에는 16개의 출연(연) 외에도 26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개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반면 출연(연)들은 91년 이후 창업지원규정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벤처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였다. <표 1>을 보면 벤처기업의 스피노프는 91년부터 96년까지는 경향적으로 증가하다가 97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에 창업이 감소한 것은 IMF 경제위기에 따라 창업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대덕 21세기’ 회원사의 모태기관을 보면 ETRI가 26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개사, KAIST가 11개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5개사, 한국화학연구소가 4개사이다.<sup>5)</sup> ETRI의 정보통신분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계측·정밀기기분야는 상대적으로 벤처기업 창업에 유리한 분야이며, KAIST의 경우 졸업생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덕 21세기’ 회원사 중에서 현재 1개사만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을 뿐, 4개사는 공

장입지 때문에 인근 충북에, 나머지는 모두 대전에 소재하고 있다.

‘대덕 21세기’ 회원사들은 97년에 약 1,000억 원의 총매출액은 나타났다. 이들의 매출액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회원사의 대부분은 아직 창업기에 머무르고 있다. ‘대덕 21세기’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품화에 성공하여 매출이 신장되는 성장기에 이른 회원사는 10개 정도에 불과하며, 성숙기에 속하는 회원사는 아직 없다고 보았다. 성장기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인근 충북이나 대전의 제4산업단지에 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로서 <표 5>의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아직 대부분의 회원사는 영세하여 97년말 종업원 20인 이하의 회원사들이 80%를 넘고 있으며, 현재 16개 회원사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ETRI에서 스피노프된 벤처기업들은 ‘대덕 21세기’ 회원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ETRI에서 스피노프된 기업들은 EVA(ETRI Venture business Association)라는 벤처기업 모임을 따로 결성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EVA 회원사의 추이('98년 12월)

구 분	'90년 까지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ETRI 창업기업 <sup>1)</sup>	-	1	-	1	3	4	5	2	28	44
독자창업기업 <sup>2)</sup>	8	-	2	1	1	2	5	3	2	24
소 계	8	1	2	2	4	6	10	5	30	68
SERI 출신기업 <sup>3)</sup>	9	5	1	5	5	2	3	5	1	36
합 계	17	6	3	7	9	8	13	10	31	104

주 : 1) ETRI 창업지원규정에 의거하여 창업한 기업임  
 2) ETRI 창업지원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업한 기업임  
 3) 1998년 ETRI와 통합된 시스템공학연구소(SERI)의 연구원들이 창업한 기업임  
 자료 : ETRI 내부자료

5) 나머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3개, 생명공학연구소가 2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각각 1개 등이다. 기계산업이나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생명공학산업의 경우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연구소에서의 스피노프는 많지 않았다.

〈표 2〉와 같이 ETRI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은 모두 104개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작년에 '대덕 21세기'의 신규 회원사가 4개사에 불과했지만 ETRI에서 31개의 많은 벤처기업이 창업된 것은 ETRI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104개 기업 중에서 '대덕 21세기'와 EVA에 동시 소속된 26개 벤처기업들은 모두 창업한지 오래된 기업들로서 EVA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VA에만 소속된 78개 기업들은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 중이거나, '대덕 21세기' 가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EVA 회원사 중에서 47개사가 서울에서 활동 중이며, '대덕 21세기'는 아직 회원사들의 초보적인 정보 교환 및 지역 사회에서의 압력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되는 벤처기업들은 향후 증가할 전망이다. 출연(연)의 창업보육센터의 확대 및 신설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에 ETRI와 원자력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의 확대가 있었으며 올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대덕 21세기', EVA, 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를 종합해 볼 때 작년 말까지 대덕연구단지에서 약 150개의 벤처

기업이 배출되었으며<sup>6)</sup>, 이들 중에서 약 100개가 대전지역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2. '대덕 21세기'

'대덕 21세기'에는 대덕연구단지의 각 출연(연)에서 스핀오프된 주요 벤처기업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대덕 21세기'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들의 일반적 특징과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연구소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들은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출연(연)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들은 창업기의 경우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들보다 혁신적이지 못하다. 이들은 창업기에 출연(연)에서 습득한 기술, 출연(연)에의 납품, 출연(연)의 거래처 인수, 출연(연)의 연구용역 참여 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속하는 '대덕 21세기' 회원사들은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두 벤처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표 3〉과 〈표 4〉의 두 기업은 창업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 성공적인 벤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A사는 1991년 ETRI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으로서 현재 반도체 제조장비인 MOCVD(금속유기화학 증착장비)를 제조하

〈표 3〉 A사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의 추이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매출액(억원)	4.1	7.9	19.8	39.8	40.8	50.3	44.6
R&D(억원)	0.6	3.2	4.1	5.1	5.8	6.9	27.0
R&D/매출액(%)	14.6	40.5	20.7	12.8	14.2	13.7	60.5

자료: A사 내부자료

6) 작년 9월에 개소된 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에는 현재 연구소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 10개가 입주해 있다. 이 중에서 '대덕 21세기'에 가입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7개이다.

〈표 4〉 B사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의 추이

구 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매출액(억원)	0.2	2.8	5.6	11.1	17.3	19.6
R&D(억원)	-	-	-	1.0	2.5	6.1
R&D/매출액(%)	22.2	2.6	1.3	9.4	14.5	31.2

자료: B사 내부자료

고 있다. ETRI의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결과는 쉽게 상업화될 수 있고 중소기업에게 용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ETRI 출신 창업주들은 다른 출연(연) 출신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처음부터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A사 창업주는 '처음에는 계획대로 맞아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상품화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반도체 회사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 매출액은 반도체장비의 수선과 ETRI의 연구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반도체장비의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자 선반, 밀링 등을 갖추어 반도체장비의 수선에 종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ETRI의 연구용역을 하청 받아 상업화가 가능한 반도체 제조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사는 93년에야 회사의 주력제품인 MOCVD의 개발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A사는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표 3〉과 같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투자를 하였고 이것이 A사의 성공에 큰 뒷받침이 되었다. 현재 A사는 수입대체적인 Metal MOCVD 제조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을 겨냥한 BST MOCVD의 제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97년 연구개발투자 비율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사의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B사는 1992년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으로서 현재 생명공학 실험장비와 시약을 제조하고 있다. B사의 경우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습득한 기술, 연구소의 거래처 인수 및 실험장비 제공 등을 기반으로 실험장비 및 시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표 4〉와 같이 창업기에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구개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B사는 수입대체적인 제품 판매에 의한 성장은 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미료 발효와 관련된 균주에 대한 계놈을 해석하는 틈새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표 4〉와 같이 1995년 이후 연구개발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이 평균 11%대인 것을 감안하면<sup>7)</sup>, 최근 A사나 B사의 연구개발투자의 급상승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를 지표로 삼는다면 성장기에 이른 '대덕 21세기' 회원사들은 혁신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덕 21세기' 회원사들은 수출시장에 주력하는가, 아니면 기존 국내시장에 주력하는가. '대덕 21세기' 회원사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주요 벤처기업들의 매출액 및 수출액을 보면 〈표 5〉와 같다.

7) 김선홍(1997)의 벤처기업협회 소속 159개 벤처기업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은 11.0%이다.

〈표 5〉 주요 '대덕 21세기' 회원사의 매출액 및 수출액('97년)

회원사명	종업원수(명)	매출액(억원)	수출액(억원)
(주)원다레이저	25	15	1
(주)아팩스	102	45	0
(주)다림시스템	70	59	12
(주)하이퍼정보통신	41	132	0
(주)바이오니아	53	20	0

자료: 각사 내부자료

〈표 5〉와 같이 97년 현재 '대덕 21세기' 주요 회원사들의 수출액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주요 회원사들이 선진국에서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화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위의 회원사들은 모두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주)다림시스템은 다른 회원사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출액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동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MPEG를 개발함으로써 틈새시장 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셋째, '21세기 회원사'의 창업주는 여타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비해 어떠한 강점 및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21세기 회원사'의 창업주들은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고 연구소에서의 오랜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능력을 갖춘 반면, 마케팅·인사관리·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덕 21세기' 회원사의 많은 창업주들이 기술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영능력의 개발 및 외부조달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소규모 회원사일수록 창업주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창업주의 경영능력 부족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sup>8)</sup> 성공적인 벤처기업으로 예

를 든 A사의 경우 코스닥시장으로의 주식상장 과정에서 종업원과 마찰이 야기된 것, B사의 경우 최근 같은 연구소 출신의 창업 동료와 결별하게 된 것도 경영능력의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출연(연)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들의 경우 창업기에는 여타 벤처기업에 비해 혁신적이지 못하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벤처기업들은 아무런 실적도 없이 지원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기에 접어든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면서 혁신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이는 창업주의 기술능력이 높은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선진국에서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시장 의존적이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의 창업주들은 전반적으로 경영능력이 취약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Ⅲ. 지원정책 및 인프라의 현황

8) '대덕 21세기' 회원사 중에서 아직 창업기에 속하는 한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이공계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문가를 경영담당 이사로 초빙한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1. 지원정책

대전은 전국적으로 볼 때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는 지역이다.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중추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대전으로 이주했으며, 과학기술부의 벤처기업 지원이 대덕연구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지원정책이 ETR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도 가장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을 통해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직도 중앙정부 차원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및 이들의 산하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혼란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97년 8월

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청을 벤처기업 지원의 실무 책임기관으로 확인하였다.<sup>9)</sup> 중소기업청은 작년에 많은 내용을 담은 상기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의 개정안은 업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 동안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창업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벤처캐피탈의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스톡옵션의 범위 확대 등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균형적인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을 도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금, 입지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창업절차 간소화, 마케팅 및 정보지원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강조된 것도 진일보한 면이라 여겨

<표 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항 목	구체적인 내용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투자신탁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창업 및 법인설립 간소화	대학·연구기관의 실험실내 공장설립과 공장등록 허용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겸직 허용 주식회사 설립시 납입자본금을 2천만원으로 인하
벤처캐피탈 확충 및 투자자보호 강화	공공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설립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도의 도입
코스닥시장 활성화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 벤처법인간 차별성 폐지
인력·마케팅·정보지원 강화	외부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부여 허용 벤처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특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지원규정 제정

자료: <http://www.smba.go.kr>

9)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되어 있다. 특히 작년 5월 벤처기업 확인창구가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의 위상은 제고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대전 이주는 대전지역의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소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대전의 벤처타운 형성을 위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청의 출연(연)과의 연계 강화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가 98년 11월 발표한 '벤처기업 창업지원 계획 및 현황'에 따르면 향후 과학기술부의 벤처기업 지원은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의 확대, 연구소 창업가능기술의 발굴 및 연구원 창업지원의 강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결성 등 3개 사업이 중심이다. 즉 과학기술부는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확대 및 자금지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S/W지원센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가 대전에도 설립되어 있는 가운데, ETRI 창업지원센터가 작년말에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개소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지원정책은 창업지원, 자금과 입지 등 하드웨어 지원 중심이라는 기존정책의 한계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찍부터 벤처기업 지원에 노력해 왔다. 대전시는 96년에 '대덕 21세기'의 결성을 적극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2~5%의 이자보전,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통한 우대보증 등을 실시하였다. 최근 대전시는 기존정책상의 문제점을 극

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벤처기업의 경영과 애로지원을 위한 벤처닥터제, 벤처기업의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이 작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또한 성장기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타운과 공동화사업단지를 중소기업청 등의 자금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sup>10)</sup>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벤처타운과 그들의 공장이 들어설 공동화사업단지가 완공되면 그 동안 성장기 벤처기업들이 공장입지 때문에 겪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과 대전시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균형적인 지원 및 소프트웨어적 지원으로의 정책적 변화가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내실을 거두려면 부처별 지원정책의 통합, 지방정부로의 집행기능 이양 등 많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인데, 다음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인프라

벤처기업을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인 인프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다. 조형래(1998)는 벤처기업의 인프라를 창업교육기관, 창업보육센터, 벤처캐피탈, 일반금융기관, 창업지원기구, 중소기업지원기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활성화방안과 연계시켜 창업보육센터, 벤처캐피탈, 출연(연)을 주요한 인프라로 보고자 한다. 여기

10) 대전시는 지난해말 4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의 공장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형 임대공장(다산관)을 완공하였다. 그러나 이 다산관은 11개 기업만 입주할 수 있고 벤처기업 지원시설 및 지원기관이 없어 벤처기업의 집적시설로는 한계가 있다. 2001년말에 완공예정인 벤처타운(장영실관)은 20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기관과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장영실관 옆에 조성될 한밭공동화사업단지는 12,000평 규모의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서 출연(연)은 창업지원기구 및 창업교육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에 관해 살펴보자. 현재 대전지역에는 9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sup>11)</sup>

업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창업보육센터에는 약 100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대덕 21세기' 회원사 16개가 포함된다.<sup>12)</sup> 우선 대전은 창업보육센터의 과잉상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오

<표 7> 대전지역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현황('98년 12월)

창업보육센터명	부지	보육실 규모	입주현황	지원부처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KAIST내	33실	33실	과학기술부
	한국통신연구소내	100실	입주신청중	
충남대 국책사업단	교내	40실	15실	교육부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교내	15실	13실	중소기업청
배재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교내	15실	12실	정보통신부
ETRI 창업지원센터	구 시스템공학 연구소내	70실	50실	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연구소내	11실	10실	
대전S/W지원센터	EXPO 재단내	11실	6실	정보통신부
	대덕우체국내	6실	6실	
(주)충남창업보육센터	서구 평촌동	17실	7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유성구 장동 (대덕연구단지내)	25실	입주신청중	대전광역시
계	9개 기관	337실	152실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필자가 일부 보완)

<표 7>과 같이 98년 12월 현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등의 지원하에 337개의 보육실 규모를 갖춘 창업보육센터가 존재하며, 152실이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이 중에는 개인들이 입주한 것도 있고 (주)충남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한 기업은 벤처기

래된 창업보육센터이자 전형적인 기술창업보육센터인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에서조차 졸업기업을 아직 배출 못한 상태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난립하다 보니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간 경쟁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11) 창업보육센터(BI)는 일반적인 창업보육센터와 기술집약적 또는 기술수준이 높은 창업자를 지원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TBI)로 나눌 수 있다. 김정흠외(1998)에 따르면 TBI는 창업초기 경영여건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 실용화 분야를 지원하는 기술보육센터(TI)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KAIST의 신기술창업지원단이 대표적인 TBI이며,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등도 TBI를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TBI를 창업보육센터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1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16개의 '대덕 21세기' 회원사 중에서 12개 기업은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에, 3개 기업은 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에, 1개 기업은 대전S/W지원센터에 각각 입주해 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들은 경영지원, 공용서비스지원을 위한 인력과 시설이 미비하여 장소제공 이외의 지원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하드웨어적 지원을 통한 가시적인 물량 위주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16개의 '대덕 21세기' 회원사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피노프된 벤처기업들도 처음에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기의 벤처기업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벤처캐피탈에 관해 살펴보자. 대전지역에는 6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있으나, 이들이 대전지역의 벤처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이전에는 창업투자회사 설립규정 중에서 최소자본금 요건이 서울의 경우 300억원이었으나 지방은 100억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창업투자회사가 지방에 설립되었지만, 이들의 자금운용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행 대전지점(1998)에 따르면 75개의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중에서 9개 기업만이 벤처캐피탈을 이용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우리 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들은 벤처캐피탈로서의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벤처캐피탈회사들은 벤처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유망한 벤처기업의 발굴, 벤처기업의 기술 및 경영 자문,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야후(Yahoo)가 벤처캐피탈을 통해 유능한 경영전문가를 영입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69개의 창업투자회사를 비롯해 많은 벤처캐피탈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결여

하고 있어서 유망한 벤처기업의 발굴,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 자문,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피노프된 벤처기업들은 경영능력 및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sup>13)</sup> 전문성을 가진 벤처캐피탈은 이들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출연(연)의 창업지원을 살펴보자. 출연(연)들은 스피노프된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지원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의 휴직 인정, 보유기술 제공, 보유장비 무상임대, 애로기술 지원, 각종 정보제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원은 창업기에 속하는 벤처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덕 21세기' 회원사들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출연(연)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는 힘들다고 한다. 출연(연) 내에서 누군가가 스피노프된 벤처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지속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조직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성장기에 속하는 벤처기업들이 출연(연)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기에 속하는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연(연)의 종합적인 기술축적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송위진외(1998)도 사례연구를 통해서 출연(연)이 개발기술을 스피노프된 벤처기업을 통해 상업화하거나, 스피노프된 기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3) 현재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들은 대부분 융자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뒤따른다. 또한 은행대출시 벤처기업에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특별보증의 혜택이 있으나 이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담보나 매출실적을 요구하는 은행의 관행상 운영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 IV. 활성화 방안

### 1.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

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되는 벤처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대전지역의 창업보육센터가 내실화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입지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경영지원과 공용서비스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기술창업보육센터는 기술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문성을 갖춘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는 정부지원기관, 기업, 성공한 벤처기업 출신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둘째,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및 ETRI 창업지원센터같은 규모가 큰 창업보육센터에는 컨설팅회사를 입주시킬 필요가 있다. 입주기업들이 컨설팅회사로부터 상시적인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전지역의 창업보육센터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보육센터들은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전문화된 창업보육센터로의 분업적 발전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서 창업보육센터를 크게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99년 5월 중소기업청은 2002년까지 전국에 500개의 창업보육센터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계획 하에서 올해 대전지역에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창업보육센터가 과잉인 대전지역에서 출연(연)을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때문에 이의 내실화는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지역 창업보육센터들의 역사가 아직 일천하다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의 방안 중에서 우선 창업보육센터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내실화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내실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2. 전문 벤처캐피탈의 설립

출연(연)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들만을 전담하는 전문 벤처캐피탈회사가 대전지역에 설립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대로 출연(연)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들은 기술능력을 갖춘 반면, 경영능력이 취약하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경영 컨설팅 및 장기투자를 제공하는 전문 벤처캐피탈이 존재한다면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에게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대덕 21세기' 일부 회원사들이 전문 벤처캐피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현실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출연(연)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을 위한 전문 벤처캐피탈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작년에 310억원 규모의 'MOST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였고 올해에는 400억원 규모의 'MOST 2호 투자조합'을 추진하여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적어도 올해에 추진되는 투자조합은 출연(연)에서 스핀오프된 벤처기업만을 위한 벤처캐피탈로 전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학기술부의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과학기술부가 업무의 전문화에 실패했기 때문이

다. 벤처기업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벤처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되는 추세에서, 과학기술부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 정책을 나열 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전문성을 가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출연(연)의 지속적인 지원체제 구축

출연(연)은 현재 구조조정, 연합이사회의 출범, PBS의 도입 등으로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구조조정과 연합이사회의 출범이 완료되더라도 PBS의 도입은 출연(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4)</sup> PBS는 출연(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출연(연)들이 연구프로젝트 확보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연구기능 이외의 기타 기능들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스피노프된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려면 제도적으로 ETRI의 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출연(연)별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연합이사회별로 연구결과의 산업화와 창업 촉진을 전담하는 조직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스피노프된 벤처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연구결과의 산업화와 창업촉진을 중시하는 마인드가 출연(연)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의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출연(연)에 근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에 주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 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간의 기능 조정이 심각

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연(연)이 계속적으로 연구결과의 산업화 및 창업촉진을 소홀히 한다면 출연(연)의 위상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연(연)들은 우선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에 포함된 대학·연구기관의 실험실 공장 설립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 및 연구원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기존의 실험실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실험실공장은 벤처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험실공장이 활성화된다면 출연(연)의 연구원들은 큰 위험부담 없이 연구결과를 스스로 산업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출연(연)에서 스피노프되는 벤처기업을 확대하고 기존 벤처기업과 출연(연)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각 출연(연)들이 실험실공장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산업화와 창업촉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기대한다.

## V.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덕연구단지의 출연(연)에서 스피노프된 벤처기업 중에서 약 100개의 기업이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지역 벤처기업의 증추를 이루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들의 대부분은 아직 창업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그다지 혁신적이지 못하지만, 성장기에 이른 벤처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혁신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수입대체적인

14) PBS(Project Base System)는 연구원가에 연구참여자 인건비, 연구직접경비, 간접비를 계상하는 제도이다. 간접비란 기관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말한다. PBS의 도입에 따라 조직관리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팀별로 구성되는 센터별 단장제도나 팀장제도로 점차 바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생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술능력은 높은 반면에 경영능력이 취약하다.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균형적인 지원, 입지·자금 위주에서 벗어난 지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출연(연)에서 스펀오프된 벤처기업을 위한 인프라는 취약하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 전문 벤처캐피탈의 설립, 출연(연)의 지속적인 지원체제 구축 등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들에 비해 소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반 위에서 벤처기업들이 도덕적 해이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이다.

본 연구는 연구기관에서 스펀오프된, 벤처기업의 하나의 유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이자 대덕연구단지의 향후 발전방향을 점검해 본다는 의의가 있지만, 자료상의 제약과 기존연구의 부족 때문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에 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대전지역의 벤처기업 및 대덕연구단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를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한국은행 대전지점,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현황과 그 특징」, 1998.
- 김갑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지원방안", 「과학기술단지와 지역활성화(98학술심포지움)」, 한국지역사회학회, 1998.
- 김선홍,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 「기업경
- 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권 46호, 1997.
- 김정흠·박주형,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지원실태 분석 및 운영강화 방안", 「98정기학술대회논문집」,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
- 김홍범,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전략과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벤처경영연구」, 중소기업학회, 제 1권 제 2호, 1998.
- 강병수, "대덕연구단지과 지역경제: 첨단산업의 창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단지와 지역활성화(98학술심포지움)」, 한국지역사회학회, 1998.
- 기정훈, "벤처기업의 형성과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박용규·강신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 설성수외, 「대덕연구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9.
- 송위진·신태영,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특성 분석: 사례연구", 「기술혁신학회지」, 한국기술혁신학회, 제 1권 제 3호, 1998.
- 이공래외,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 이장우·장수덕,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벤처경영연구」, 중소기업학회, 제 1권 제 2호, 1998.
- 조형래,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개선방안", 「벤처경영연구」, 중소기업학회, 제 1권 제 2호, 1998.
- 한영주·성홍모, 「서울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 현재호, "세계의 테크노폴과 대덕연구단지의 성격", 「과학기술단지와 지역활성화(98학술심포지움)」, 한국지역사회학회, 1998.
- Brush, C. G. and P. A. Vanderwerf, "A Comparison of Methods and Sources for Obtaining Estimate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7, 1992.
- Burgelman, R. and R. Rosenbloom(ed), *Research on Technological Innovation, Management and Policy*, Vol. 5, JAI Press, 1993.
- Carter, N. A. et al., "New Venture Strategies:

- Theory Development with an Empirical Ba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5, 1994.
- Chandler, G. N. and S. H. Hanks,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9, 1994.
- Freeman. C. and L. Soete,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MIT Press, 1997.
- Sandberg, W.,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and Industry Structure*, Lexington Books, 1986.
- <http://epic.kdi.re.kr>
- <http://www.most.go.kr>
- <http://www.mic.go.kr>
- <http://www.smba.go.kr>